

광주시 '고농도 미세먼지' 차량 2부제

〈공공기관〉

다음달부터 '비상저감 조치' 시행 ... 사업장 조업 단축 전남도, 배출사업장 970곳 점검 모든 시·군에 측정소

광주시가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등 시민건강 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 비상저감조치'를 오는 4월 16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현재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만 시행되고 있으며, 광주시는 최근 국내·외 대기오염 물질 영향과 대기 정체 등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2월 초부터 17개 기관·부서와 협업팀을 구성해 구체적인 시행안을 마련했다.

시는 당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다음날 광주지역 미세먼지(PM-2.5) 농도가 '매우 나쁨'(7ug/m3 이상) 수준으로 예보(국립환경과학원)될 경우 오후 6시부터 5개 자치구를 포함한 전 기관(공사·공단 포함)을 대상으로 광주권 미세먼지 긴급비상조치 시행안을 발령한다.

비상저감조치 주요 조치사항은 교통분야의 경우 공공기관 차량2부제 시행, 도로

청소차 운영 확대, 주·정차 시 공회전 금지(터미널 등 110개소) 등이다. 공공기관 차량2부제는 차량번호가 홀수일 경우에는 홀수차량이, 짝수일에는 짝수차량이 운행하게 된다. 단, 민간차량은 자율적으로 2부제에 참여할 수 있다.

사업분야는 공공기관 사업장(대기오염, 비산먼지) 조업시간 단축, 민간 대기오염 배출사업장(1종~3종) 조업시간 단축 권고 등이 시행된다.

시는 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자발적인 시민참여로 확대되도록 캠페인 전개, 전광판, 시·구, 공사공단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통해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아울러 어린이, 어르신, 복지시설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은 비상저감조치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공기청정기 가동, 물걸레 청소 등), 야외수업 자제 등 대응행동요령을 따르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전남도 역시 모든 시·군에 고농도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대기오염측정소 설치를 서두를 계획이다. 모든 시·군에 측정소를 설치해 정확한 대기질 정보를 제공하고, '긴급 비상저감조치' 발령 등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는 또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970여 곳에 대해 시·군과 합동점검을 하고,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전기자동차 보급과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등 대기환경 개선 사업도 추진한다.

전남도는 지난 24일부터 3일 연속 미세먼지 '나쁨'(PM2.5 36~75µg/m³) 수준을 나타내는 등 대기환경이 나빠지자 미세먼지 7대 대응요령을 안내했다. 7대 대응 요령은 ▲외출 가급적 자제하기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외출 후 깨끗이 씻기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야채 섭취하기 ▲환기·물청소 등 실내공기질 관리하기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 등이다.

／윤형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도 375억 들여 저출산 극복 나선다

결혼·임신·출산 등 4개분야 44개 사업 추진

전남도가 올해 375억원을 투입, 저출산 극복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저출산 심화로 인구가 줄어 지방소멸이 예측되는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16년 출산, 보육, 일·가정 양립 등 생애주기별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저출산 극복에 사활을 건다는 마음가짐으로 결혼·임신·출산 분야 15개, 맞춤형 보육돌봄 분야 12개, 출산전후 분위기 조성 분야 11개, 일·가정 양립 분야 6개 등 총 4개 분야 44개 사업을 시행한다. 신규 사업이 6개, 개선 사업이 12개, 계속 사업이 26개다.

신규 사업은 한방 난임치료,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다함께 돌봄사업 등 6개로

42억원을 지원한다. 이 중 한방 난임치료사업은 전남도와 전남한의사협회가 협약을 체결, 1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100명의 난임 여성에게 한약과 침·뜸 등 한방치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사업은 800명의 신혼부부와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에 임신에 필요한 건강검진을 제공한다. 여성은 여성질환 검사와 항체검사 등에 17만원, 남성은 소변검사와 정액검사 등에 9만원 이내로 지원된다.

확대 및 개선 사업은 전남도와 도교육청이 함께 추진하는 다둥이 희망만들기 학생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와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농가도우미 지원, 출산전후직장분위기 조성 등 12개 사업이며,

227억원을 지원한다. 전남지역 합계출산율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간 전국 1~2위를 유지해 오고 있으나, 혼인과 가임여성이 계속 줄고 출산연령이 높아지면서 최근 5년간 신생아 수가 연평균 4.9%씩 줄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전남지역 합계출산율은 1.33명으로, 인구대체수준인 2.1명을 크게 밑돌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정책의 추진 방향에 맞춰 출산 관련 기존 정책을 보완·발전시키고, 새 시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문동식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사회구조 문제들이 해결돼야 이를 극복할 수 있다"며 "갈 길이 멀지만 전남 상황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 아이 낳고 기르기가 좋은 전남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 혁신교육감 시민 경선 파행 위기

광주지역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추진하는 혁신교육감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시민경선)이 '경선물'을 둘러싸고 파행 위기에 놓였다.

'광주혁신교육감 시민경선 추진위원회'가 26일 '광주 혁신교육감 시민경선 규칙' 최종안을 마련해 경선 참여 후보자들에게 수용 여부를 오는 27일까지 밝혀달라고 했는데, 특정 후보자 측이 반발하고 나서

면서다. 시민경선에는 이경선 전 광주교대 총장, 정희곤 전 광주시 의원, 최영태 전남대 교수 등 3명이 참여하고 있다.

추진위원회의 경선규칙 최종안은 시민 선거인단 투표 50%와 여론조사 결과 50%를 반영하도록 했다. 1위 후보자의 득표가 50%를 넘지 않을 경우 결선투표를 진행하도록 했다. 추진위는 다음달 23일까지 시민 선거인단을 모집해 같은 달 27~28일

투표와 여론조사를 할 예정이다. 하지만 경선 참여자 가운데 이경선 전 총장 측이 "역선택 방지책이 없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서면서 파행을 앞두고 있다. 이 전 총장 측은 "여론조사에서 30% 후반대의 현 정무국 광주시 교육감 지지자를 배제하지 않고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은 현 교육감의 2중대를 단일 후보로 뽑는 것에 불과하다"며 "중대 결심을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6·13 선거 현상

구청장·시장·군수 후보

임우진 내일 서구청장 출마 선언



임우진 광주 서구청장이 오는 28일 오후 2시 양3동 발산마을 108계단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7기 서구청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임 구청장은 26일 "민선 6기 4년간 서구 구정은 위대한 변화와 함께 각 분야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며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시키기 위해서 현재의 리더십이 지속되는게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재선에 도전하게 됐다"고 밝혔다. 임 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지역별 특색 공약을 밝을 계획이다. 특히, ▲지역 역량 정책과 고도화 ▲주민자치 고도화 ▲삶의 질과 관련된 서비스 체계적인 육성 등 민선 7기 구정방향 제시할 예정이다.

김상훈 "전남대병원 첨단3지구 유치"



김상훈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청장 예비후보는 26일 "전남대학교병원 신축이전을 첨단3지구에 유치하여 지역 의료 거점 분할을 통한 광주 전역의 의료·보건 시스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광주 내 3차 의료기관 중 가장 거대한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병원이 동구에 치우쳐져 있는 점을 지적하며, 광주 인구의 약 30%가 거주하는 북구 지역으로 전남대학교 병원이 이전해야 한다"면서 "전남대학교 본교가 북구에 위치해 있어 전남대학교 자체 학사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문상필 "북구에 여성비전센터 건립 필수"



문상필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청장 예비후보는 26일 "여성친화도시 북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성비전센터 건립이 필수이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여성친화도시는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도시를 말한다"며 "이를 위해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일상적으로 삶이 안전해야하고, 정보에 접근하기 편리해야하며, 보육환경을 비롯한 환경이 쾌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구가 여성친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여성비전센터건립이 필요하다"며 "여성비전센터는 여성들의 경제력 자립과 복지에 초점이 모아질 것이다. 이를 위해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여성 스스로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우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이다"고 덧붙였다.

조오섭 "지방선거·개헌 동시 국민투표 환영"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청장 원내대표는 26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회와 당시 원내정당 대선 후보 5명과와 앞선 회동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는 지방선거와 개헌안에 대해 동시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전해한 뒤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아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을 자유한국당에서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후보는 "1991년 지방자치제도의 부활 이후 중앙의 집권과 집중에서 지방으로의 분권과 분산이 확대되어가고 있다"며 "이번 개헌안에는 '대한민국'을 '지방분권 국가'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정하는 등 지방정부의 입법권한을 크게 강화하고 있어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김삼호 "광산구, 한전공대 입지 적합"



김삼호 더불어민주당 광산구청장 예비후보는 26일 "나주 혁신도시 한전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의 현황과 전망에 기초하여 한전공대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며 "광산구는 한전공대가 들어서기에 적합한 요소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정치적 수사나 구호가 아니라 큰 틀에서 한전공대의 전체 구상과 비전에 따라 적지가 어디인지를 따져야 한다"며 "광산구는 광주·전남의 관문으로 광주공항과 광주송정역이 있다. 고속도로도 가깝다. 교통요지라는 점이 광산구의 가장 큰 장점이다"고 밝혔다.

윤난실 "미세먼지 없는 청정광산" 공약 발표



윤난실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청장 예비후보는 26일 '미세먼지 없는 청정광산'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된 산단 대기오염과 악취를 포함하여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청정광산 공약을 발표한다"며 "산단 주변 환경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 및 대응센터 설치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지원을 위해 마스크, 보육복지시설 공기청정기를 단계적으로 지원하고 태양광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통한, 에너지 생산도시 광산 만들기에 돌입하겠다"고 덧붙였다.

허석 "청렴도시 순천 만들것" 시장 출마 선언



허석 더불어민주당 순천시장 경선 예비후보는 26일 "청렴 도시 순천을 만들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허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순천시 조례동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의 소득이 증가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경제성장 도시 순천을 만들겠다"면서 "Smart city (지역 특성 테마형 특화도시), Start up city (기술 창업 벤처 기업의 클러스터 도시), Searching city (찾아가는 도시), Silver industry city (실버산업 도시) 등 4S 도시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전남 교육감 후보

오인성 "오월정신 전국화 앞장설 것"



오인성(62·전 나주교육장) 전남도교육감 예비후보는 26일 "오월정신 계승을 위해 다양한 계기교육을 하고 교육부 및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을 통해 오월정신 전국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오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광주시 북구 망월동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나서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집권기간에 5·18 정신을 폄하하려는 시도가 많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예비후보는 이어 "자랑스러운 5·18민주화운동과 그 속에서 꽃피웠던 나눔과 공동체 정신, 저항정신을 우리 학생들이 공감하며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의 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순천=김은종기자 ejkim@kwangju.co.kr

새로운 세계를 보다
신세계안과
밝은광주안과가 ● 신세계안과로
7월 1일 이름을 바꿉니다
8인의 안과전문의(현 의료진 그대로)

정부지원 농·어촌 태양광 사업안내
산업통상자원부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가능
에너지관리공단 90% 융자지원사업 / 선택순 접수
농협 **연금발전소**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99KW설치시 연금처럼 월250만원 고박고박 (25년동안 년평균 3,000만원)

▶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 만만 빌려주셔도 임대료를 선불로 드립니다 (5,000평 이상)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해가온에너지 (주)해가온 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